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땅’에 관한
주제론적 고찰

- 『관촌수필』, 「삼포 가는 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곽 아 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땅’에 관한
주제론적 고찰

- 『관촌수필』, 「삼포 가는 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곽 아 람

인 준 서

곽아람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70년대는 정치·사회적으로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다. 그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산업화라 할 수 있다. 외적으로 산업화는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듯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과 농촌의 피폐화라는 이중의 문제들을 양산하였다.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작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관심은 노동자들의 문제에 쏠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의 하나가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이며, 농촌을 대상으로 뛰어난 문학적 결실을 맺은 것이 『관촌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적절하게 다룬 것이 「삼포 가는 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한민국’라는 땅 위에서 벌어진 일들로 ‘한반도’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벌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격동의 시대를 인간과 함께한 ‘땅’은 소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변하고 유지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땅’은 우리가 태어나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항상 함께 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터전으로 삼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표현하기에 가장 익숙하고 적합한 매개체다. 그러므로 작가는 치밀하게 계산을 하여 소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 현재, 더 나아가 미래의 ‘땅’을 적절히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하여 산업화 시대의 ‘땅’에 인식 변화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세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땅’을 마음의 안식처로 느끼고 땅에 대한 애착

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식처의 땅이 점점 변화함에 따라 그저 변화에 순응하는 인물과 아노미 상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물, 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지키려는 능동적인 인물에 따라 소설의 전개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문구의 농촌소설 「관촌수필 1-일락서산」은 변해버린 ‘관촌’을 안타깝게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농촌 사회의 붕괴를 우회적으로 그려내었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삼포’라는 고향이 사라져 당황하는 정씨의 모습을 통해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을 리얼리즘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는 ‘달나라’라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과 철거민의 암울하고 폭력적인 현실을 빈터라는 땅과 대조시키며 영희 가족의 저항을 통해 환상적으로 상징화하였다.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본 1970년대 ‘땅’의 형상화는 당시 민중들의 고통스런 삶의 양식을 공간화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촉구하는 문제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방법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8
II. 70년대 소설의 땅 형상화 양상	11
1. 1970년 소설과 땅의 의미	11
1) 70년대와 소설	11
2) ‘땅’에 대한 정의	13
2. 땅 이미지와 주제 양상	16
1) 서산과 삶의 근원적 여정: 이문구의 「관촌수필 1-일락서산」	16
2) 질척한 길과 유랑의 삶: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27
3) 빈터와 행복의 상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40
3. 땅과 작중 인물의 인식	53
1) 삶의 근거로서의 땅	53
2) 재화로서의 땅	58

Ⅲ. 결론 63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과거와 현재의 관촌 비교 1>	19
<표 2: 현실의 이동 >	21
<표 3: 과거와 현재의 관촌 비교 2>	23
<표 4: 과거와 현재의 관촌 비교 3>	24
<표 5: 대천읍 대천리 387번지의 의미>	25
<표 6: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고향>	26
<표 7: 흙의 이미지 변화>	28
<표 8: 과거와 현재의 땅>	31
<표 9: 도시의 이미지 변화>	33
<표 10: 과거와 현재의 삼포>	38
<표 11: 과거의 땅>	43
<표 12: 구체화 되는 미래의 땅>	51
<표 13: 과거, 현재, 미래의 땅>	52

I. 서론

1. 연구 목적

70년대는 정치·사회적으로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다. 이 시기 작가들이 언급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사회의 발전으로부터 희생되고 소외된 사람들로서, 이촌향도가 낳은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는 주제가 한 개인, 더 나아가 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데,¹⁾ 이 때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땅’이라는 소재다. ‘땅’은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등장인물에게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땅’은 그동안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다소 넓게 다루어졌다. 광범위하게 다뤄지다 보니 ‘땅’이라는 개념은 그 속성을 잃어버린 채 다른 공간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땅’의 특징은 같은 땅을 가리키더라도 땅의 속성을 통해 의미하고 표현하는 바가 다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그동안 발견되지 못하고 공간이라는 명목 하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의 개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땅’이라는 속성이 소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지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70년대는 ‘고도성장’이나 ‘수출증대’를 부르짖던 때부터 기층민의 생활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²⁾되던 시기였다. 산업화는 외적으로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듯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과 농촌의 피폐화라는 이중의 문제들을 양산하였다.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작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관심은

1) 김병익, 「7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정리를 위해서」,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95쪽.

2) 서종택, 「산업화와 삶의 조건」, 『한국현대소설사론』, 고려대출판부, 1999, 302쪽.

노동자들의 문제에 쏠리게 되었다. 이에 관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의 하나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며, 농촌을 대상으로 뛰어난 문학적 결실을 맺은 것이 『관촌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적절하게 다룬 작품이 「삼포 가는 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서 벌어진 일들로 ‘한반도’만의 특수성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격동의 시대를 인간과 함께 한 ‘땅’은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며 작가가 소설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작가들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땅’은 소설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유지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70년대는 기존의 농업이 주였던 사회가 산업 위주로 변화하던 과도기적 시기였으므로 이 특징을 표현하는 소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70년대 농촌을 대표하는 『관촌수필』,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절망을 대표하는 「삼포 가는 길」, 도시화로 인한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대표하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 작품 속 등장하는 ‘땅’이 작가로 하여금 어떻게 사용되고 표현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연구사 검토

기존 연구에서는 『관촌수필』, 「삼포 가는 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 이문구, 황석영, 조세희에 대하여 각각의 작가를 주제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작가를 한데 모아 비교 연구한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인데, 이 연구들 역시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땅’이라는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

70년대 소설들에 대해 높이 있게 평가한 김윤식과 정호웅³⁾은 농촌 공동체

의 해체와 근대화 비판의 대표 소설로 『관촌수필』과 『우리 동네』를 꼽았고, 현실과 소설의 구조적 상동성, 노동자 계급의식을 나타낸 소설의 시초로 「삼포 가는 길」과 「객지」를 제시하였으며, 산업 노동자의 세계와 윤리적 이분법의 문제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였다.

강상대⁴⁾는 황석영 소설의 일탈적 방황과 ‘길’의 사회학적 의미, 조세희 소설의 일탈적 불구와 ‘집’의 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포 가는 길」의 ‘삼포’를 ‘집’에 닿지 못하는 ‘길’의 연장으로 보았으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속 ‘집’의 훼손이 결국은 가정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길’과 ‘집’이라는 공간 활용이 본고의 연구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70년대 사회 변동에 투사된 창작의도와 그 의의를 이문구의 『우리 동네』와 윤희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연구한 심지현⁵⁾은 농촌 공동체의 해체와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 도시 변두리로 내몰린 극빈층과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을 리얼리즘 시각에서 담아냈다. ‘농촌’과 ‘도시’라는 땅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춘 것과 윤희길의 작품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이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이 새롭다.

이들 작가의 소설 속에 나오는 하급 계층의 인물들이 70년대 농촌, 도시, 감옥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권경미⁶⁾는 「관촌수필 1-일락서산」에서는 집의 크기로 느껴지는 허탈감을 연구하였고, 「삼포 가는 길」에서는 정씨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감옥이라는 공간이

3) 김윤식 외,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429~436쪽.

4) 강상대,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일탈구조 연구: 황석영, 조세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5) 심지현, 「1970년대 소설의 사회변동 수용 연구: 이문구, 윤희길, 조세희의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6) 권경미,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하급 계층 인물 연구: 이문구, 조세희, 황석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주는 의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는 ‘달나라’라는 땅을 이상향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의 추방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본고에서 살펴볼 연구 대상과 관점에 부합하는 선행 연구사를 작품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문구의 『관촌수필』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잃어진 육친과 쫓겨난 고향에 대해 바치는 최대의 문학적 헌사요 낳아준 땅에 되돌리는 가장 귀한 값음이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염무웅⁷⁾은 『관촌수필』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관촌수필』에 있어서 ‘땅’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촌’을 공동체적 이상향으로의 회귀라는 주제 아래 ‘헛묘→등성이’로 옮겨지는 땅에 초점을 두고 ‘상실의 감정’의 관점에서 비춰지는 고향(관촌)에 대해 언급한 연구도 있다.⁸⁾ ‘관촌’을 과거의 재구성과 시공간적 차원에서 ‘고향 찾기’로 봄으로써 ‘관촌’이라는 땅을 본고에서 다룬 내용과 가장 근접하게 접근⁹⁾하기도 하였는데, 「일락서산」을 포함하여 『관촌수필』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공간을 ‘과거-현재’의 관촌으로 나누어 다루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시대성에 비추어 구술 문화적 소통이 가지는 결속력을 공동체의 시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귀향 모티브를 차용하여 서술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공간 ‘관촌’을 그리움의 고향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락서산」을 귀향소설의 한 전형을 이룬다고 하였다.¹⁰⁾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 대한 논문은 독립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황석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지거나 다른 작가의 소설들과 한데 묶여 여로형 소설로 논의된 것이 대부분이다.

우찬제¹¹⁾는 「삼포 가는 길」이 현대인의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정

7)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330쪽.

8) 원종국,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9) 김양희, 「『관촌수필』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0) 김윤희, 「『관촌수필』과 『우리동네』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씨와 영달, 백화 등 소외된 인물을 내세워 왜곡된 산업사회의 현실에서 인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자신의 길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매우 넓은 범위로 사용되었으며, 일종의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탈)향성과 귀향성의 양상으로 「삼포 가는 길」을 분석한 논문은 뜨내기들이 만들어 낸 인간에 소설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뜨내기로 사는 그들의 삶에 핵심을 두고 ‘땅’을 안온함과 평화로움의 상징인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¹²⁾ 이로 인해 황석영의 다른 소설들도 언급됨으로써 그 범위가 매우 크게 다뤄졌다. 황석영 소설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공간의 변화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삼포’라는 공간이 어떻게 긴밀하게 형상화되는지를 각각의 공간(들판, 길, 마을)을 통해 이루어 졌다.¹³⁾ 「삼포 가는 길」을 ‘삼포’, 혹은 ‘길’에만 치중하여 분석을 하였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들판, 마을 등으로 그 시야가 넓혀지면서 새롭게 인식되었다.

한편, ‘도시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노동자의 빈민화와 이들의 직업 의식이나 저항의식에 관하여 소설을 분석한 연구는 ‘삼포’라는 고향을 상실한 노동자 정씨와 그 밖의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도시 빈민의 빈곤한 현실을 논하였다.¹⁴⁾ 하지만 인물에 중점을 두다 보니 소설 속 등장하는 ‘삼포’라는 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소외되었다. 산업화로 사라진 ‘삼포’라는 공간을 낙원으로 규정짓고 황석영의 중·단편 소설 속에 반영된 현실의 대응법과 형상화 방법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¹⁵⁾ 그동안 ‘삼포’라는 공간을 ‘고향’이라는 측면이 아닌, 이를 넘어서 ‘낙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이 흥미롭

11) 우찬제,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177쪽.

12) 신재선, 「황석영 소설 연구: 소설에 나타난 실(탈)향성과 귀향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3) 김지운, 「황석영 소설의 공간적 배경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4) 한근영,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도시 노동자 문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5) 김유진, 「황석영의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현실과 대응 양상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다.

위의 논문들이 황석영이라는 작가를 중심으로 「삼포 가는 길」을 분석한 것이라면, ‘여로형 소설’이라는 테두리 안에 「삼포 가는 길」을 분석한 논문 중 본 논문의 주제와 상응하게 쓰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여행의 모티프를 지닌 「삼포 가는 길」, 「천마총 가는 길」, 「통도사 가는 길」을 살펴보고 ‘삼포’로 상징되는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본 연구는 그 곳에 가기 위해 여로에 오르는 인물의 공간 이동을 다루었다.¹⁶⁾ 「만세전」, 「동행」, 「삼포 가는 길」속 여로 구조와 양상을 분석하고 여로형 소설의 의미를 살펴본 논문은 ‘삼포’를 ‘낙원’의 이미지로 보는 정씨와 ‘낙원’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달을 비교하며 ‘낙원’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¹⁷⁾ 하지만 두 논문 모두 ‘여로형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연구이기 때문에 소설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땅’에 대한 주제론적 고찰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관한 논문은 단편 하나에 그치지 않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단편집 전체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땅은 ‘낙원구 행복동’과 ‘달나라’ 두 가지인데, 이를 다루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속 대립적 구조의 양상에 대해 논한 연구는 ‘달나라’를 초월적 공간이라고 보고 ‘낙원구 행복동’과는 대립적 공간으로 바라보았다.¹⁸⁾ 현재의 공간을 지옥이라 표현한 소설 속 영수의 말을 인용하여 ‘낙원구 행복동’의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달나라’를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앞의 연구와는 조금 다르게 못 배우고 못 가진 낙오계층이라는 ‘우리 구역’과 수직적

16) 조현옥, 「여로형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 ‘~가는 길’ 소설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7) 가성훈, 「한국 현대 여로형 소설의 구조와 양상: 「만세전」, 「동행」, 「삼포 가는 길」」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18) 김덕숙,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상승 욕망 추구의 이상세계 ‘달나라’를 상반되는 이미지로 보는 연구도 있다.¹⁹⁾ 배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에 처한 공간을 바라 봤다는 것이 매우 특이할 만하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우리의 역사가 새로운 시·공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킨 신호탄, 즉 한국 역사 전체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 낸 작품으로 류보선²⁰⁾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만큼 70년대에 있어서 이 소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땅’의 의미는 주목할 만하다.

현실과 환상의 대립이라는 주제 아래 ‘낙원구 행복동’의 공간을 궁핍한 난장이 가족의 현실이며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동의 대가라고 본 논문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집의 권리를 빼앗아버리려는 강력한 힘 앞에 저항하지 못하는 현실의 공간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달나라’는 보상의 공간이며, 노동의 대가가 현실화 되는 이상적인 곳이라고 규정지었다.²¹⁾ ‘노동의 대가’를 기준으로 현실화의 여부에 따라 공간이 나뉘는 셈이다. 작품의 창작 배경과 작가 의식, 작품 속에 드러난 현실 인식을 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처한 ‘낙원구 행복동’은 부조리한 현실 공간이며,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꿈과 사랑이 있는 행복한 곳이면서도 하루아침에 변두리로 내몰리게 되는 곳으로 본 연구도 있다. 하지만 ‘달나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이지만 현실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난장이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상징된다.²²⁾

위에서 언급한 네 개의 논문들은 모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속 공간을 어느 정도 ‘땅’으로 인식하여 대립적 구조로 논하였다는 것 자체가

19) 김윤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20) 류보선, 「사랑의 정치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서 본 조세희론」,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385쪽.

21) 유경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1970년대 현실 인식에 따른 환상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2) 김용구,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현실 인식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공간이라는 넓은 범위로 다뤄져 ‘땅’이 주는 고유한 특성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단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만을 자세하게 고찰한 경우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 소설 속 등장하는 ‘땅’을 가지고 70년대의 대표 단편 소설 「관촌수필 1」, 「삼포 가는 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70년대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관촌수필 1」, 「삼포 가는 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선택하여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땅’의 이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등장인물과 나아가 작가의 ‘땅’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소설에 있어서 제목은 소설의 얼굴로 보통 주제를 대변하거나 암시해주는 데, 다음의 두 소설은 제목에 땅의 이름이 언급되며 땅이 의미하는 바도 다르다. 「관촌수필 1」의 경우, 작가가 나고 자란 공간이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충남 보령군 보령읍 대천리 속칭 관촌부락’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관촌’은 작가의 고향이자 연작 소설의 주제를 하나로 묶는 구심적 역할을 한다.

「삼포 가는 길」에 등장하는 ‘삼포’라는 땅은 정씨가 가려던 고향이었지만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곳이다. 정씨가 생각했던 삼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진행 중의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 속 ‘삼포’는 주제를 나타내기에 ‘가는 길’로서 도달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상징한다.

하지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경우 「관촌수필 1」이나 「삼포 가는 길」과 다르게 제목에 땅의 지명이 나오면서 소설의 주제를 부각시

키진 않는다. 하지만 소설 속 배경으로 되는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 1839’란 공간을 두고 펼쳐지는 내용의 소설이므로 땅이 소설에 주는 효과를 알아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작품도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70년대 소설이 쓰였던 시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70년대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쓰인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 속 등장하는 땅의 이미지가 다분히 시대상황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땅’이라는 명칭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땅’의 이미지는 광범위하게 보면 매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를 짐작하기 어렵다. 반대로 ‘땅’이라는 속성에만 치우쳐 생각하면 자칫 소설의 주제를 흐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의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땅을 의미하는 비슷한 단어로는 대지(大地)와 토지(土地)가 있다. 대지는 주로 대자연의 넓고 큰 땅²³⁾을 의미하며, 토지는 이용에 의한 땅²⁴⁾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매우 한정적이다. 이와 다르게 땅은 순우리말로 의미하는 바가 넓어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땅은 같은 땅을 말하더라도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현재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것들이 혼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땅이라는 단어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소설 속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여 땅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내포된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이문구의 「관촌수필 1」²⁵⁾, 황석영의

23)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자연의 넓고 큰 땅. ② 좋은 밭자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 두산동아, 2000, 1494쪽.

24)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 ② [법]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못이나 늪·하천 따위를 포함해서 이르기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하, 두산동아, 2000, 6412쪽.

「삼포 가는 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땅을 통하여 소설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소설별로 땅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소설 속 인물들이 땅을 인식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기본 자료는 작가가 처음 소설을 문학지에 발표했을 때의 작품이 아닌 그 후 재출간된 책의 작품으로 삼았는데, 이는 작가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 출간된 첨삭·가필·개고 작업을 것이므로 기본 자료로 삼았다. 살펴보는 순서는 작품이 처음 출간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²⁶⁾

25)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모두 단편소설이므로 동일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관촌수필』중 한 작품을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관촌수필 1」인 일락서산(日洛西山)만을 꼽아 분석한 것은 『관촌수필』의 말머리이자 산업화로 인해 변해버린 70년대의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나타냈기 때문이다.

26) 이문구의 「관촌수필 1」(현대문학 209, 1972년 5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신동아 109, 1973년 9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문학과 지성 26, 1976년 12월)의 순서대로 출간되었다.

II. 70년대 소설의 ‘땅’ 형상화 양상

1. 1970년 소설과 땅의 의미

1) 70년대와 소설

산업 및 생산 시설들의 설립과 성장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에 축적되어 있던 상대적 과잉인구의 도시 이동은 가속화 되어 ‘이농(離農)’ 또는 ‘이촌향도(離村向都)’로 불리는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²⁷⁾ 이는 70년대의 정치·사회 구조에 따른 결과물인데, 이를 연도별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70년에는 한국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져 개통되었다. 급속도로 이뤄낸 산업화다보니 이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했고, 급기야 70년 11월에는 평화시장 종업원 전태일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분신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은 채, 산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71년에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72년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적십자가 첫 회담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해산, 대학휴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유신헌법을 공포하게 되고 박정희는 제 8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독재정치를 계속하여 이어 갔다.

75년에는 유신헌법 찬반(贊反)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반대를 금지하도록 하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기도 했으나 76년 명동성당의 3·1절 기념 미사에서 민주구국 선언을 하며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이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

27) 국사편찬위원회, 『농토를 떠나 공장으로 : 1970년대 이촌향도와 노동자의 삶』, 국사편찬위원회, 2011, 7쪽.

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망함으로써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은 막을 내리게 된다.

문학사적으로 연도를 구분을 하여 소설의 편수를 세어보면 해마다 소설의 발표 편수가 늘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²⁸⁾ 이는 새로운 문학지들이 거의 매년 창간되면서 소설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다 보니 작가들의 창작 동기 고취에 도움이 되어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상황으로 보아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침묵할 수 없었고,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울분을 토하는 도피처로 소설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쓰인 소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국가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하여 반공법이라는 명분 아래 문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였고, 문학과 현실 사이에서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문인들의 삶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통해 사회를 고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문인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문인들도 있었는데, 74년에 개헌청원서명운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서명한 문인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 ‘문인간첩단사건’이 발생²⁹⁾하여 구속되기도 했다.

서구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함께 유입된 물량주의에 따른 물질숭배사상은 청빈을 미덕으로 여겼던 전통적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고, 그 결과로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쾌락주의가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되었다.³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재화가 대량생산되어 물질적 측면의 안락함은 증폭되었으나 정신적 측면이 이를

28) 70년대 발표된 소설 작품 편수- 1970년: 287篇, 1971년: 319篇, 1972년: 354篇, 1973년: 332篇, 1974년: 410篇, 1975년: 403篇, 1976년: 489篇, 1977년: 511篇, 1978년: 541篇, 1979년: 541篇 (신문·잡지에 발표된 소설 작품의 편수를 세었을 때 재수록된 소설과 소설집은 제외시켰으며,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작품 연표 1, 2』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를 참조하였다.)

예외적으로 78년도와 79년도의 소설 발표 편수가 정체된 것은 「문학사상」 3·4월호가 자진 휴간함으로 인해 소설이 그만큼 발표되지 못하여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9) 이로 인해 이호철, 김우중, 정을병, 임헌영, 장백일이 구속당하였다.

30) 김홍신,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산업화 양상 연구』, 박이정, 2010, 79쪽.

쫓아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삶에 대한 회의는 커져만 갔고, 소득 격차는 상대적 빈곤감을 야기하였다. 산업화가 우선이다 보니 무분별한 발전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었으며, 농촌은 인구 유출로 인해 피폐해졌고, 도시는 과잉 인구를 양산하였다.

70년대에는 이렇듯 유독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기에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문학인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문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비록 과란만장한 사건 속에서 문인들의 자유를 움아매는 70년대였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소설의 제재가 되고 시발점이 되어 사회 모순의 극복을 문학으로 발휘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문학의 꽃은 그 어떤 다른 때보다도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었다.

2) ‘땅’에 대한 정의

‘공간’³¹⁾은 ‘땅’을 포함하는 큰 범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땅’에 대해 문학적 개념 정의에 앞서 큰 범위에서의 학문적 의미로 그 뜻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대 과학과 인문학에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대 과학에서 공간이란 어떠한 크기로도 분할될 수 있는 것으로 ‘수학적 공간’이요 ‘추상적 공간’³²⁾이라고 본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할될 수 있기

31)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무것도 없는 빈 곳. ②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③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④ [물]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 고전 역학에서는 삼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사용하였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을 포함한 사차원의 리만 공간을 사용한다. =현간(玄間). ⑤ [수] 어떤 집합에서 그 요소 사이 또는 그 부분 집합 사이에 일정한 수학적 구조를 생각할 때, 그 집합을 이르는 말. 이에는 n차원 공간, 위상(位相) 공간 따위가 있다. ⑥ [철]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기본 형식. 유물론에서는 공간의 객관적 실재를 인정하지만 칸트 철학에서는 이를 선형적인 직관 형식으로 파악한다. ⑦ [북] 사업이나 말 또는 글 같은데서 앞뒤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아 생긴 빈 곳.

국립국어원, 앞의 책, 503쪽.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묘사만 할 수 있는 심오한 세계이다. 반면 문학에서 사용하는 ‘공간(空間)’의 개념은 철학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기본 형식을 의미한다. 공간은 절대적 실체가 아니며, 차원의 관계로 구성되는가 하면 지각과 인식의 양상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구성체’이다.³²⁾

문학에서의 공간이란 문학이 현실세계와 유추적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그것이 실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 사물과 대상을 통해 드러나는³⁴⁾ 곳이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시에서는 공간을 기억, 공상, 상상력을 통하여 이미지가 구축되는³⁵⁾ 곳이라고 하였다. 소설에서 공간은 시간과 함께 인물들의 역동적인 행위를 개연성 있게 제시하기 위한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물들이 성장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규정³⁶⁾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공간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모호하며 규정짓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공간의 개념보다는 ‘땅’이라는 객관적 실체에 맞게 소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땅’³⁷⁾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한다. ‘땅’은 그 정

32) 이진경, 「근대 과학의 시간·공간 개념」,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1, 101쪽.

33) 장일구, 「서사 공간의 역학」,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18쪽.

34)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비평사, 1988, 17쪽.

35) 이세경,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공간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6쪽.

36) 김종욱, 「서사문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의미」,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36쪽.

37)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겉면. =육지. ② 영토(領土) 또는 영지(領地). ③ (앞의 말을 받아서) 그 지방. 또는 그곳. ④ 토지나 택지. ⑤ 흙이나 토양. ⑥ 논이나 밭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앞의 책, 1800쪽.

의가 학문에 따라 달라지므로³⁸⁾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의미와 광의적 의미, 현대적 의미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땅의 보편적인 의미로는 바다를 제외한 흙과 돌로 된 지구의 겉면을 일컫는데, 물로 된 지면을 제외한 모든 지구의 면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山), 길(路)이나 논·밭을 포함하여 과수원까지만 이에 해당시키도록 한다. 땅의 광의적 의미로는 영토를 말하는데, 이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나라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지방’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 ‘대전’이나 ‘부산’등의 도시의 이름까지도 범주 안에 속한다. 또한 ‘전라도 지방’과 같이 뭉뚱그려 지역 전체를 나타낼 때 의미하는 땅도 여기에 해당시키도록 하겠다. 현대에 들어 인식되고 강조된 땅의 의미로는 부동산으로서의 토지나 택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집)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집이 거주 목적의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들이기도 하기에 매우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땅의 기본적인 산, 길, 논·밭, 영토, 부동산의 의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표현한 모든 것을 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땅’은 질퍽한 느낌이나 흠어지는 모습을 자아낼 수 있고 딱딱하고 메마른 현실을 표현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공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또한 같은 땅이라도 부르고 지칭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 따라 작가의 의도가 변한다. 이렇듯 땅은 작가의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므로 본고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

38) 이를 테면 땅을 신학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선물,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깨도록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곳이기도 하다.(옥상주, 「구약 시대의 땅의 의미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하지만 건축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땅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반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터전이다.(임연수, 「‘땅’의 속성을 반영하는 지형적 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2. 땅 이미지와 주제 양상

70년대는 이촌향도로 인해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과거가 그리워 낙향을 결심하고, 비록 도시에 살던 사람일지라도 산업화가 된다는 명목하에 인간의 생존권을 박탈당해 쫓겨나며, 혹은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길 위에 나왔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시대를 대변하고 고발하기 위해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소설에서 등장하는 70년대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는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땅의 모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서산과 삶의 근원적 여정: 이문구의 「관촌수필 1-일락서산」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여덟 편에 이르는 연작소설의 형태로 발표된 『관촌수필』은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사라져 버린 고향의 질박한 인정과 풍속에 대한 그리움을 배경으로, 공산주의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인공치하에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한 작품이다.³⁹⁾ 「일락서산(日落西山)」, 「화무십일(花無十日)」, 「행운유수(行雲流水)」, 「녹수청산(錄水靑山)」, 「공산토월(空山吐月)」은 작가의 유년기에 대한 회고담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후반부인 「관산추정(關山芻丁)」, 「여요주서(與謠註序)」, 그리고 「월곡후야(月谷後夜)」는 장성한 뒤에 귀향했다가 겪은 경험담이다.⁴⁰⁾

이 중 「일락서산」은 반상(班常)적 질서 속에서 양반의 긍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할아버지에 대한 끌림과 역사(전쟁)의 희생양이 된 아버지에 대한 외경을 회상⁴¹⁾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작

39) 강진호, 「분단에 대한 자각과 주체적 극복의지- 1970년대 분단소설에 대해서」, 『탈분단 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121쪽.

40) 진정석, 「이야기체 소설의 가능성」,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180쪽.

41) 이봉범, 「농민문제에 대한 문학적 주체성의 회복: 1970년대 농민문학론과 농민

가의 고향을 배경으로 70년대 농촌의 현실을 과거와 대조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에 여덟 편의 연작 소설 중에서도 「일락서산」만을 통해 소설 속 땅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촌수필 1-일락서산」에는 유독 과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등장한다. 소설 속 ‘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과거가 그리워 낙향을 한 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 속 고향의 이미지를 그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속 고향을 의미하는 ‘땅’은 자꾸 언급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무늬가 잦아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영재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쓸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⁴²⁾ (밑줄-필자)

오랜만에 관촌을 찾은 나의 시야에 들어온 ‘뒷동산 부영재’는 현재의 관촌이다. 하지만 나의 머릿속 과거의 관촌은 살과 뼈가 여물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나에게 애착이 있는 마을이었다. 인간의 형상이 뼈를 중심으로 그 위에 살이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처럼 살과 뼈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다. 이러한 원초적인 모습이 여문 마을은 내게 있어서 혼이며 내 뿌리와의 같은 것이다. 이 혼과 뿌리를 작가는 ‘마을’이라는 땅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옛 땅의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소설 속 나는 서운한 심정을 홀로 토로하고 있다.

나는 이윽고 신작로가 나뉘면서 검붉은 황토를 드러낸 좁다란 골목길로 들어섰

소설」,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72쪽.

42) 이문구, 「일락서산(日落西山)- 관촌수필 1」, 『관촌수필』, 랜덤하우스중앙, 2004, 10쪽.

다. 몇 걸음 안 가서 이내 과수원이 나왔다. 이제 과수원 탕자나무 울타리 곁은 탕이만 돌아가면 철철이 선대의 손길이 닳아지고, 사변 이듬해부터는 여러 가지 푸성귀와 그루갈이를 내 손으로 직접 거두어 먹다가 집과 함께 모개홍정으로 처분하고 떠났던, 팔백여평의 터알이 나타날 숨가쁜 길목이었다. …(중략)… 소나기가 두어 줄금만 내려도 산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이 흐르던 길가의 개랑은 수채만이나 하게 좁아진 반면, 그 구거지溝渠地에는 지질한 블록집들이 잇대어 서 있어 등산객의 걸음이 잦은 서울 교외의 외진 동네와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다.⁴³⁾

‘신작로’는 현재의 ‘나’가 걸어서 왔던 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현재의 관촌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신작로가 나뉘어 ‘검붉은 황토’와 ‘좁다란 골목길’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과거에도 익히 알고 있었던 ‘과수원’이 나온다. ‘과수원’은 풍요로운 관촌의 땅 이미지를 나타내며, 다음에 나올 가능성의 땅인 ‘팔백여평의 터알’으로 그 의미가 이어진다.

이때부터 소설 속의 나는 과거의 관촌으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 ‘팔백여평의 터알’이 나타날 ‘숨가쁜 길목’에 있기에 아직 현재의 ‘팔백여평의 터알’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다. ‘팔백여평의 터알’은 그저 나의 과거 기억 속에 있는 관촌의 모습일 뿐이다. 광활하고 드넓었던 팔백여평에 이르렀던 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과거의 내 모습이자 과거의 땅이었다.

하지만 ‘숨가쁜 길목’은 과거의 관촌을 지나온 현재의 관촌이다. 길목이 숨이 가쁘다고 표현한 것은 땅이지만 생명력을 불어넣어줌으로써 현재의 복잡하고 바쁜 인간을 형상화한 것이다. 현재의 관촌은 지질한 블록집들이 잇대어 서 있는 ‘구거지’의 형태로 현재의 이미지를 더욱 구축시킨다. ‘구거지’는 개울이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 땅 위에 물이 흐르는 형상이다. 이 형태는 과거의 관촌에 현재 관촌의 모습이 비취지는 모습이다.

작가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시키기에 ‘땅’의 속성이 가장 적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을 언급하며 ‘나’의 시각을 쫓고 있다.

43) 15쪽.

과거의 관촌	현재의 관촌
검붉은 황토	신작로
좁다란 골목길	
과수원	숨가쁜 길목
팔백여평의 터알	구거지(溝渠地)

<표 1: 과거와 현재의 관촌 비교 1>

그럴 적이면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앞세워 칠성바위로 나왔고, 질경이와 광대나물이 흔하던 바위 앞 보리밭에서 남보다 몇 갑절씩 들나물을 잘 뜯던 망아지만한 웅점이도, 부살같이 손칼을 놀려대며 나물바구니를 채워가곤 했었다.

웅점이는 마음씨가 너그럽고 착한 아이였다. 그녀는 3천 석의 지주이며 한말에 중추원의 의관을 지내다가 인접 동네 달밭으로 낙향하여 살았던 외가의 행랑아범 딸로, …(중략)…⁴⁴⁾

한번은 헛묘 앞에서 마주친 할아버지한테 나도 무심할 수 없어 물어보기까지 했다.

“할아버지, 요기가 무슨 평당이래유? 까시덤폴만 우거진 황토밭인디…….”⁴⁵⁾

…(중략)… 그 제방 울안, 내 또래의 어린것들이 제집 마당으로 알며 놀았던 개필과 갈대밭은, 구획도 제대로 된 논으로 변해버려 염분이 성에처럼 서리고, 고동이며 장뚱이가 밭길에 차이던 개필 아닌 농로는, 리어카와 소달구지 자국으로 울고르케 누벼져 있었던 것이다.⁴⁶⁾

44) 17~18쪽.

45) 21쪽.

46) 27~28쪽.

땅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과거의 관촌을 의미하는 땅으로서의 ‘밭’이다. 이 ‘~밭’은 도시에서는 찾기 힘든 땅이기에 과거의 관촌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다. 밭의 종류도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보리밭과 달밭, 황토밭과 갈대밭으로 나열되고 있다. 이 밭들은 모두 토속적인 이미지로 보리나 달뿌리 풀, 황토와 갈대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골 마을의 한가로움과 정겨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네 가지의 밭은 모두 소설 속 ‘나’가 과거를 회상했을 때 등장하는 땅의 모습으로 과거의 관촌을 설명하기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의 형태였다. 도시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땅이라는 점이 작가가 ‘~밭’을 선택하여 소설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땅과 현재의 땅이 기억과 현실 속에서 교차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범바위 앞, 서울로 이사하기 앞서 종산으로 먼봉해드린 다음 집과 함께 모개홍정해 선로원線路員 김씨에게 팔아넘긴 산소 자리에는 고구마를 갈았다가 거둬들인 듯, 마른 고구마 덩굴이 우북더북한 밭고랑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빗날은 언제 그쳤던가, 비거스름이를 하느라고 바람이 몹시 매웠다. 좀더 저물고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읍내로 들어가야 하리라. 그러나 나는 몇 가구의 하잘것없는 인가를 돌아 옛동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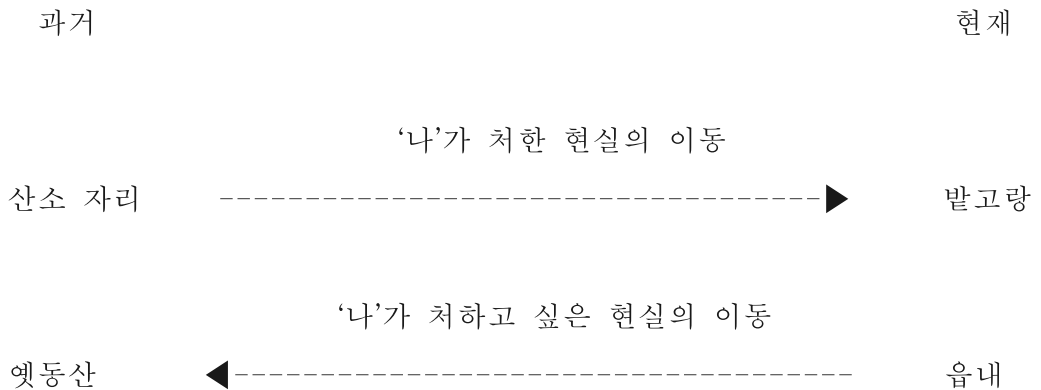
‘산소 자리’는 ‘나’의 과거 속에 있는 관촌의 땅으로 현재에는 마른 고구마 덩굴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 있는 ‘밭고랑’으로 바뀌어 있다. 그것도 단순히 ‘밭고랑’이 아니라 ‘우부룩하고 더부룩한’ 밭고랑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나’가 느끼고 있는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고르지 못한 밭고랑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읍내’(현재)로 들어가야 하지만 고향을 찾은 ‘나’는 과거의 관

47) 23~24쪽.

촌을 찾고 싶기 때문에 ‘옛동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동산은 작은 산이나 언덕일지라도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힘을 더 써야만 오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잊고 살았던 과거의 추억을 꺼내기 위해 애써 힘을 들여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나’의 마음은 다음의 표를 통해 좀 더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다.



<표 2: 현실의 이동 >

‘나’가 처한 현실은 밭고랑과 읍내가 있는 현재의 관촌이다. ‘나’는 ‘산소 자리’에서 밭고랑으로 바뀐 현재의 관촌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가 처한 현실을 인지하지만, ‘나’가 처하고 싶은 현실은 ‘읍내’가 아니라 ‘옛동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읍내’로 돌아가지 않고 ‘옛동산’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나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가을이면 조석으로 쓸어 담아내어도 땅이 안보이게 낙엽이 쏟아져 쌓이던 정원이며 뒤란, 서너 칸이 넘던 대청마루와 사랑 뒤탈마루들, 쓸고 닦기가 지겨워 아늑하고 좁은 집에서 살기를 그토록 원했던 내 신세는, 이젠 내 명의로 된 유일한 부동산이기도 한 열한 평짜리 아파트 한 칸만을 겨우 지니게 되고 말았다.⁴⁸⁾

「관촌수필 1-일락서산(日落西山)」에는 과거와 현재의 관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나’가 처한 제 3의 땅도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파트’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땅이다. 과거 ‘나’가 살았던 관촌은 낙엽이 쏟아져 쌓이던 ‘정원’이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정원이 없는 도시의 ‘아파트’인 것이다. 뒤뜰과 서너 칸이 넘던 대청마루, 사랑뿔마루가 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고작 11평짜리의 ‘아파트’로 전락했다. 그 씩씩한 마음은 ‘겨우’ 지니게 되고 말았다는 ‘나’의 말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밭마당 밑뜸, 행랑채로 남아 대북이네가 살았던 초가는 그새 주인 또한 몇 차례나 갈리었을까. 이젠 제법 기와도 올린 알뜰한 주택으로 바뀌어 크막한 문패까지 달고 있었다. 미나리밭으로 쓴 마당 밑 박우물 아래 초입 논배미부터, 내리담이로 신작로까지 늘어섰으려니 했던, 가뭄을 모르던 무논이어서 해마다 오려를 거둔 구렁찰 논들은, 벌써 그런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게 붉은 기와나 슬레이트로 다시 이은 허름한 집들이 들쭉날쭉 제멋대로 들어차 있었다. 원래는 우리 논이 끝난 곳이 신작로였고, 신작로를 건너서면 이내 장항선 철로가 가로지르고 있게 마련이었는데, 토정의 지팡이였다던 왕소나무는 흔적도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오죽잖은 블록집이 노란 페인트로 뒤발한 ‘접도 구역’이란 돌말뚝과 함께 썰렁하고도 음산하게 도사리고 있었다.⁴⁹⁾

‘초가’와 ‘논배미’가 있던 과거의 관촌은 수확할 수 있는 늦게 익은 찰진 벼들로 이루어진 ‘구렁찰 논’의 이미지였으며, 현대의 기술로 쌓아 올린 ‘블록집’(현재의 관촌)과는 확연히 다른 과거의 땅이다.

이와 상반되는 ‘접도 구역’은 도로 확장이나 도로 보호를 위해 법으로 지정한 땅이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지에 건축이나 벌목을 금하는 곳이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의 관촌처럼 ‘초가’를 짓는다거나 논배미로

48) 26쪽.

49) 26~27쪽.

사용하며 구렁찰 논이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구렁찰 논들’과 ‘집도 구역’의 두 땅은 이 부분에서 이렇듯 대조를 이루며 과거의 관촌과 현재 관촌의 차이를 땅을 통해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다.

과거의 관촌	현재의 관촌
초가	블럭집
논배기	
구렁찰 논들	집도구역

<표 3: 과거와 현재의 관촌 비교 2>

...(중략)... 뚝단배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뱃사공들의 뱃노래가 물새들의 그것보다 더욱 구성지게 울려 퍼지던 바다였었다. 그러나 그 바다도 이젠 가고 없었다. 개펄 대신 논배미들이 열린 물이었고, 기름진 농경 지대로 뒤바뀌어 있던 것이다. 상전벽해라고 듣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바다와 물을 경계하는 제방은 이십 리도 넘는다고 들었다. 그 제방 울안, 내 또래의 어린것들이 제집 마당으로 알며 놀았던 개펄과 갈대밭은, 구획도 제대로 된 논으로 변해버려 염분이 성에처럼 서리고, 고동이며 장뚱이가 밭길에 차이던 개펄 아닌 논로는, 리어카와 소달구지 자국으로 울고르게 누벼져 있었던 것이다.

...(중략)... 나는 등성에서 내려올 채비를 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기만 하여 훨씬 더 추워졌던 것이다.⁵⁰⁾

과거의 관촌과 현재의 관촌은 소설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대조되어 등장한다. 뚝단배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뱃사공들의 뱃노래가 울려 퍼져 정겹던 바다의 ‘개펄’은 ‘논배미들이 열린 물’과 ‘기름진 농경 지대’로 물

50) 27~28쪽.

라보게 바뀌었으며, ‘구획도 제대로 된 논’과 ‘농로’로 탈바꿈하였다. 이 땅들은 모두 인위적인 이미지로 현재 관촌의 모습이다.

‘개펄’의 현재를 작가는 무려 4개의 땅으로 표현하였는데, 과거의 관촌보다 현재의 관촌을 많이 언급하는 것은 소설 속 ‘나’가 과거의 관촌에서 현재의 관촌으로 빠져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과거의 관촌을 그리워하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리움에서 한발자국 떨어져서 ‘등성이’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는 현재로 돌아오고 있음을 뜻한다.

과거의 관촌	현재의 관촌
개펄	논배미들이 열린 물
	기름진 농경지대
	구획도 제대로 된 논
	농로

<표 4: 과거와 현재의 관촌 비교 3>

대천읍 대천리 387번지. 할아버지가 만년을 나고, 어머니가 기울어진 가운데 끝까지 시달리다 지쳐 운명을 한, 그러나 내 손에 모든 것이 청산되어 이젠 남의 집이 된 옛집. 대지 삼백오십여 평에 건평 칠십여 평의 ㄷ자로 된 그 집은, 술수평이 기슭 잔디밭을 뒤꼍 장독대로 하여 남향반이로 정좌한, 덩실하고 우아한 옛날의 풍모를 조금쭙은 간직하고 있는 듯도 했다. 밭마당을 둘러친 들충나무 울타리와 뒷담장을 걸으며 예위싼 열두 그루의 밤나무는 이제 완전히 늙어버린 것 같았으며, 새 주인이 닭장과 돼지우리를 내지어 약간 좁아진 듯한 대문 앞에도 그 개오동 한 그루가 아름답리로 자라 있었다.⁵¹⁾

51) 24쪽.

남쪽을 향해 있어 해가 잘 드는 잔디들이 모여 있는 땅은 과거 산업화 이전에 모여 살았던 관촌의 모습이다. 반면에 늪어버린 모습으로 변해버린 밤나무들이 있는 ‘밭마당’은 산업화로 인해 인구 이동이 있고 난 후의 관촌 풍경이다. ‘그 집’은 이 두 모습이 공존해 있는 곳이다.

‘그 집’은 현재 ‘남의 집’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했던 나의 ‘옛집’이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데 어우러져 ‘대천읍 대천리 387번지’로 귀결되는데, 과거의 관촌과 현재의 관촌을 뜻하는 땅이 모두 대천읍 대천리 387번지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옛집(과거의 관촌)

그 집 = ⇒ 대천읍 대천리 387번지
 (잔디밭+ 밭마당) 남의 집(현재의 관촌) (과거와 현재의 관촌)

<표 5: 대천읍 대천리 387번지의 의미>

나는 읍내로 나가는 과수원 탱자나무 울타리 곱은탱이를 돌 어름, 잠시 발걸음을 멈춰 다시 한번 ①옛집을 돌아다보았다. 어느덧 하루의 피곤의 질게 물든 해는 용마루 위 ②서산마루로 드리눅는 중이었고, 굴뚝마다 쏟아져나와 황혼을 드리웠던 저녁 연기들은, 젖어드는 땅거미와 어울려 처마끝으로만 맴돌고 있었다. 나는 이어 ③칠성바위 앞으로 눈을 보냈는데 정작 기대했던 그 할아버지의 환상은 얼핏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할아버지의 뉘만은 벌써 남의 땅이 되어버린 ④칠성바위 언저리에 아직도 묵고 있을 것만 같았음은 웬 까닭이였는지 몰랐다. 잘 있어라 ⑤옛집,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⑥옛집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너머 ⑦서산마루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지는 해가 있었다.⁵²⁾

①번의 ‘옛집’은 나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잘 있으라며 부르는 ⑤번의 ‘옛집’은 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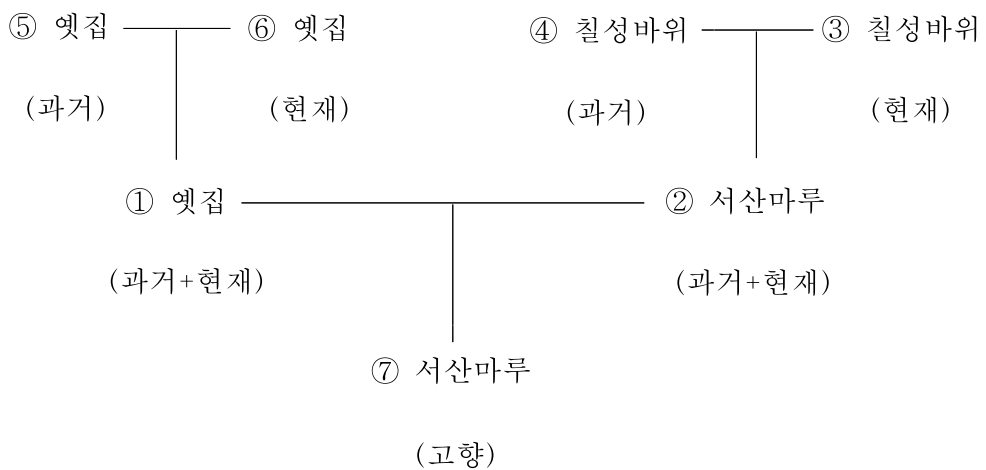
52) 57쪽.

보내는 과거의 관촌을 말하며, 되돌아보았을 때의 ⑥번 ‘옛집’은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관촌을 의미한다. 이 때 ①번의 ‘옛집’은 이 모두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칠성바위’를 빗대어 묘사한 부분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과거와 현재가 등장한다. ③번의 ‘칠성바위’는 할아버지의 환상을 기대했지만 찾아볼 수 없는 땅(현재)이고 ④번의 ‘칠성바위’는 할아버지의 녀이 아직도 묵고 있는 땅(과거)이다.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②번의 ‘서산마루’는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산꼭대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①번의 ‘옛집’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번의 ‘옛집’과 ②번의 ‘서산마루’는 다시 더 큰 의미의 ⑦번 ‘서산마루’로 귀결된다. 해가 지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서산마루’는 과거와 현재 관촌의 공존을 넘어서 70년대 삶에 있어서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의 관촌을 의미하는 땅을 함께 열거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리운 고향은 과거의 관촌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분리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고향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표 6: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고향>

이문구의 「관촌수필 1」에는 ‘일락서산(日落西山)’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다. 이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작품 속에 등장했던 기존의 땅들을 아우르는 땅의 이미지로 ‘서산’을 출현시킨 것이다. ‘일락서산’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의 산으로 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할아버지의 질서가 살아있던 시절에서부터 6·25를 겪으면서 할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집안의 몰락을 상징적으로⁵³⁾ 표현하였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세상에 태어나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빗대어 나타냈다. 여기서 해가 떨어지는 서산은 인류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일락서산- 관촌수필 1」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땅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 이동과 변화는 70년대에 있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곳이며 한편으로는 그리움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과거의 관촌과 현재의 관촌으로 비춰지는 땅은 시대상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구는 땅을 차용하여 소설에서 자주 언급하였다.

2) 질척한 길과 유랑의 삶: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삼포 가는 길」은 변화하는 사회변동의 물결에 의해 부랑하는 공사관 일거리를 찾아 나선 ‘영달’과 삼포를 찾아가는 ‘정씨’, 그리고 술집 작부로 있다가 도망 나온 ‘백화’가 겨울 들판에서 만나 조건 없이 베푸는 인간애를 그린 단편이다.⁵⁴⁾ 정씨는 십 년 만에 고향인 삼포를 향해 가는 중이며, 백화는 남쪽의 집으로 가려 한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 없는 영달은 그들을 부러워하는데, 정씨의 목적지 삼포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결국 정씨도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된다. 이는 농·어촌의 해체와 그로 인한 농·어민들의 노동자화라는 근대화의 핵심 양상을 ‘삼포’라는 땅을 기반으로 하여 구

53) 권경미, 앞의 책, 37쪽.

54) 서종택, 앞의 책, 310쪽.

조화한 것이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처음부터 땅의 이미지로 소설을 시작한다.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쬐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겍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점씩 흩어지고 있었다.⁵⁵⁾

소설의 도입부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부분으로 땅의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음지(그늘로 가려진 곳)에 있는 ‘언 흙’은 부서지며, 양지(해가 내리 쬐인 곳)에 있는 ‘붉은 흙’은 질척거렸다. 이 모습은 다음의 표와 같이 두 개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상반된 상황을 말해준다. 이들은 모두 ‘밭고랑’에 있던 흙으로 같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나 걸어옴으로써 ‘진흙 뭉치’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몇점씩 흩어진 것이다.

밭고랑	
그늘로 가려진 곳(음지)	해가 내리 쬐인 곳(양지)
언 흙	붉은 흙
부서지다	질척하다(뭉치다)
진흙뭉치가 몇점씩 흩어지다	

<표 7: 흙의 이미지 변화>

시각이 밭고랑에서 언 흙, 붉은 흙으로 변화하고, 결국에는 진흙 뭉치가

55)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삼포 가는 길』, 창비, 2005, 200~201쪽.

몇 점씩 흠어짐으로써 산업화라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흠어지는 모습을 땅을 밟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뿔뿔이 흠어진 그들이 처한 현실은 ‘겨울 들판’이었다. 혹독한 추위를 외롭게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겨울 들판의 이미지는 두 남자가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 바람부는 겨울 들판에 척 걸터앉아서도 만사 태평인 꼴이었다. 영달이는 처음보다는 경계하지 않고 대답했다.

“넉달 있었소. 그런데 노형은 어디루 가쇼?”

“삼포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달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방향 잘못 잡았수.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내 고향이오.”⁵⁶⁾

소설 속에서 처음으로 ‘삼포’라는 지명이 언급되는 대목이다. ‘겨울 들판’이라는 현실 속에서 영달은 ‘삼포’를 ‘벽지’나 다름없는 곳이라며 삼포로 가려는 사내(정씨)에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핀잔을 준다. ‘벽지’의 이미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로 문화의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 답답하고 막막한 공간으로 비취진다. 하지만 이내 정씨가 그곳이 ‘고향’이라고 대답하자 더 이상 그의 향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씨에게 있어서 ‘삼포’는 마음 속 깊이 그림고 정든 곳이었지만, 영달에게는 그저 겨울철에 일할 자리 하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땅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인식은 애초부터 달랐다. 정씨는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언제든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안식처의 땅이 필요했고, 영달은 돈을 벌 수 있는 땅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정씨의 ‘삼포’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56) 203쪽.

“몇년 만입니까?”

“십년이 넘었지. 가봤자…… 아는 이두 없을 거요.”

“그럼 뵈허러 가쇼?”

“그냥…… 나이드니까, 가보구 싶어서.”⁵⁷⁾

정씨가 ‘삼포’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다. 목적이나 이윤을 따져 한곳으로 힘겹게 달려가는 곳이 아닌, 그저 세월이 점차 지나 나이를 먹게 되자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던 정든 곳 ‘고향’을 가고 싶은 것뿐이었다. 인간에서 있어서 고향이란 태어나 자란 곳이라는 일차적인 공간의 의미를 기반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안의 뿌리와도 같은 이차적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적 공간의 의미를 포함하여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공간의 삼차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 정씨에게 있어서 ‘삼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간이었다.

정씨는 고개를 밑으로 숙인 채로 묵묵히 걷고 있었다. 언덕을 넘어섰다. 길이 내리막이 되면서 강변을 따라서 먼산을 돌아나간 모양이 아득하게 보였다. 인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이었다. 마른 갈대밭이 형클어진 채 휘청대고 있었고 강 건너 곳곳에 모랫바람이 일어나는 게 보였다. 정씨가 말했다.

“저 산을 넘어야 찬샘골인데. 강을 질러가는 게 빠르겠군.”⁵⁸⁾

‘언덕’과 내리막 ‘길’, ‘강변’, ‘먼산’은 정씨와 영달이 지나온 과거의 세월이며, 그 세월은 황량한 들판과 마른 갈대밭처럼 외롭고 힘든 역경의 시간이었다. 언덕은 비탈지고 높아 오르기 힘들며, 내리막길은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고꾸라질 수 있는 위험한 땅이다. 강변 역시 강과 인접해 있어 비가 와서 물이 조금이라도 불어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불안한 곳이다.

57) 204~205쪽.

58) 206쪽.

뿐만 아니라 먼산은 언젠가는 꼭 넘어야 도달할 수 있는, 혹은 시간이 오래 걸려 돌아서라도 가야 하는 힘든 장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장애물을 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황량하고 말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넘어서 가야 하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황량한 들판’이나 ‘마른 갈대밭’보다도 ‘찬샘골’이라는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비록 눈앞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지만, 강을 질러가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정씨는 ‘삼포’에 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과거	현재	현재의 연속선상
언덕	황량한 들판	찬샘골
내리막 길		
강변	마른 갈대밭	
먼산		

<표 8: 과거와 현재의 땅>

“좋았지 정말. 대전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볼 일두 없었구 노임두 실했어요.”

“살림을 했군?”

“의리있는 여자였어요. 애두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봄에 내가 실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구 서울루 식모 자릴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에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두 있습니다.”⁵⁹⁾

이 대목에서는 땅의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 ‘대전’과 ‘서울’이라는

59) 210쪽.

지명이다. 대전과 서울 모두 우리나라의 대도시로서, 삼포와는 대조적인 이미지이다. 도시는 농·어촌과 다르게 서로 종사하는 직종이 상이하며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화가 발달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노임도 실한 공사장이 있는 곳이었고 서울은 식모 자릴 구할 수 있는 직업을 얻기에 충분한 도시였다. 작가는 ‘도시=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대전’과 ‘서울’이란 지역을 사용한 것이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음의 부분에서도 도시에 대한 언급은 계속된다.

“이거 왜 이래? 나 백화는 이래뵈두 인천 노랑집에다, 대구 자갈마당, 포항 중앙대학, 진해 칠구, 모두 겪은 년이라구. 조용히 시골 읍에서 수양하던 참인데…… 야야, 내 배 위루 남자들 사단 병력이 지나갔어. 국으루 가만있다가 조용한 데 가서 한코 달라면 몰라두 치사하게 똥보 돈 먹자구 나한테 공갈 때리면 너 죽구 나 죽는 거야.”⁶⁰⁾

대화 속에는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인천과 대구, 포항, 진해라는 제법 큰 도시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대도시 이름의 열거는 앞서 말한 일자리가 많은 도시의 이미지와 더불어 산전수전 겪은 백화의 세월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월로 인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그녀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작용한다. 그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도시의 나열은 ‘시골읍’이라는 한 단어와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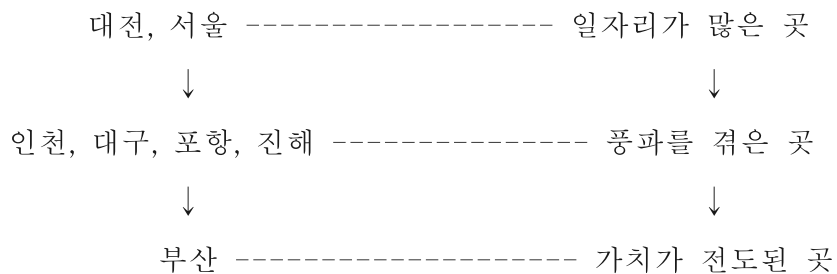
“처음에 부산에서 잘못 소개를 받아 술집으로 팔렸었지요. 거기에 갔을 땐 벌써 될대루 되라는 식이어서 겁나는 것두 없었구요,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두 깨달았던 말예요.”⁶¹⁾

60) 215쪽.

61) 220쪽.

도시는 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웃집과의 왕래가 드물며, 단절되고 삭막한 이미지의 공간이다. 처음 도시의 이미지는 일자리가 풍부하여 직업을 구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도시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는 곳으로 바뀌고, 급기야 사람을 팔아버리는 인간과 물질이 뒤바뀐 가치전도 현상이 만연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치 백화를 술집으로 팔아버린 곳이 ‘부산’이라는 도시라고 고발하는 것처럼 말이다.

땅은 변화에 민감한 곳이며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꾸며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같은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라도 소설 속에서는 조금씩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황석영은 이러한 땅의 속성을 파악하고 도시라는 땅의 이미지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바꾸고 변화시켰다.



<표 9: 도시의 이미지 변화>

위의 표처럼 도시의 이미지는 사람이 밀집해 있어 일자리가 많은 곳이며 이 때문에 다사다난한 일도 수없이 겪게 되는 땅이다. 극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다보니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팔아넘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모습은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골은 조용했고 적막했다.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로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

길은 조용했고, 굴뚝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왔다.⁶²⁾

감천을 가는 도중 들른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다. 시골은 도시의 이미지와 걸맞는 큰길이 아니라 그저 자그마한 ‘골목길’이 있는 곳이었기에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골목길’은 시골벽적하고 사람이 붐비는 도시의 이미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기엔 제격이었다. 작가는 ‘골목길’이 있는 이곳이 정씨가 찾던 고향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⁶³⁾

황석영은 조용한 골목길을 넘어서 산골 마을을 적막하다고 표현했다. 앞서 언급한 도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도시로 떠난 사람들로 인해 폐가도 있지만 물오리떼가 내려앉았다가 날아오르는 정겨운 곳이기도 했다.

70년대에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과도기적 시대로, 대도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골 마을’의 폐가 출현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땅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선택이었다.

대도시를 향해 갔던 사람들에게 적막한 ‘산골 마을’은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본인의 옛 정든 마을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소설에서는 언젠가 꼭 돌아갈 ‘고향’이라는 땅으로 분출된다.

62) 217쪽.

63) 218쪽.

“넉달 있었소. 그런데 노형은 어디루 가쇼?”

“삼포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달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방향 잘못 잡았수.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내 고향이오.”⁶⁴⁾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에 마음의 정이 든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씨가 가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백화의 고향은 어디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⁶⁵⁾ 밤마다 고향으로 출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드는 그리운 곳이다.

“어디까지 가오?”

“집에요.”

“집이 어딘데……”

“저 남쪽이에요. 떠난 지 한 삼년 됐어요.”

영달이가 말했다.

“애네들은 긴밤 자다가두 툇하면 내일 당장에라두 집에 갈 것처럼 말해요.”

백화는 아까와 같은 적의는 나타내지 않았다. 백화는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 머리 카락을 자꾸 쓰다듬어 올리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영달이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래요. 밤마다 내일 아침엔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요. 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보는 적두 있어요. 나두 꼭 두 번 고향 근처까지 가봤던 적이 있어요. 한번은 동네 어른을 먼발치서 봤어요. 나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 ……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⁶⁶⁾

백화는 도망쳐 나온 서울식당 주점에 영달과 정씨가 잡아서 데리고 갈까 봐 매우 흥분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내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에 적의가 사

64) 203쪽.

65) 남쪽의 전라선을 타고 가는 곳이라는 정도로만 나온다.

66) 215~216쪽.

라지고 고향을 그리고 있는 본인의 심경을 토로한다. 이는 정씨와 백화 모두 고향을 마음 한쪽의 그림고 정든 추억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이 사나요, 삼포라는 데는?”

“한 열 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요. 비옥한 땅은 남아돌아가구, 고기두 얼마든지 잡을 수 있구 말이지.”⁶⁷⁾

이때까지만 해도 삼포는 ‘아름다운 섬’이며 ‘비옥한 땅’이 남아도는 곳이었다.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풍요로운 동네였으며, 열 집 남짓하게 살 정도로 한가로운 땅이었다. 이곳은 생존의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풍성하고 비옥한 자연 환경을 가진 평화로운 공간⁶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공간의 땅이었던 정씨의 고향 ‘삼포’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과거의 삼포로 기억하는 정씨와 현재의 삼포를 이야기하는 노인의 대화는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이 소설의 백미에 해당한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년 만에 가는 거요?”

“십년.”

67) 206~207쪽.

68) 정혜경, 「길 모티프 소설에 나타난 ‘서사 공간’의 양상」,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제144호, 2006, 248쪽.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구, 추력이 수십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뭇 뺨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뒤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잡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⁶⁹⁾

과거 정씨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삼포는 노인이 말한 도자를 끄는 복잡한 공사판이 아니었다. 공사판은 돌을 나르는 소리와 기계 소리에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공간인데 기껏해야 고기잡이나 감자를 매는 자연의 소리만 존재하는 땅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다. 고작 열 집이 살 정도였기 때문에 나룻배가 다니던 곳이었고, 이제는 신작로가 생겨서 나룻배가 필요하지 않는 산업화에 의해 변질된 땅이 되었다. 정씨의 가슴 속에 있던 과거의 삼포와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현재 삼포를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69) 224~225쪽.

과거의 삼포	현재의 삼포
아름다운 섬	육지(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음)
비옥한 땅	도차를 끄는 공사판
고작 열 집이 사는 곳	공사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고기잡이나 감자를 매는 곳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 곳
동네	장이 들어선 곳
나룻배가 다니는 곳	추력이 수십대씩 돌을 실어 나르는 곳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	풍문마저 낫선 곳

↓	↓
---	---

정씨 마음의 정처	영달이 돈을 벌 수 있는 곳
-----------	-----------------

<표 10: 과거와 현재의 삼포>

같은 ‘삼포’일지라도 정씨에게 있어서 ‘삼포’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동안 가슴 속에 품고 살았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기에 현재의 삼포는 너무나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다르다 못해 대조적인 모습으로 삼포의 이미지가 변화했으므로 정씨에게 있어서 삼포는 더 이상 ‘고향’이 아니다. 정씨는 ‘고향’(과거의 삼포)이 없어졌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영달처럼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포’는 고향으로서가 아니라 부랑노무자의 현실인 공사현장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며,⁷⁰⁾ 산업화로 사라진 공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⁷¹⁾ 땅으로 전락하게 된다.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정씨의 심정은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어

70) 강상대, 앞의 책, 74쪽.

71) 김유진, 앞의 책, 60쪽.

두운 들판'이었을 것이다. '어두운 들판'은 답답한 공간이며, 기약이 없는 막연한 땅이다. 희망의 빛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들판에서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의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혈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⁷²⁾

이 부분은 소설의 도입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영달의 모습을 '혈벗은 들판'의 이미지로 밀착시킴으로써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모습을 혈벗은 들판에 대입시켰다. 영달은 소설의 결말부가 되기 전까지 어디로 갈지 궁리를 하는 사내였지만, 정씨는 영달과 반대로 처음부터 '삼포'라는 뚜렷하게 갈 곳이 있는 처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씨는 길을 나섬에 있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말에 이르러서는 둘 다 마음의 고향이 없는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오히려 오래 전부터 돌아갈 고향이 없는 영달보다 정씨가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⁷³⁾

혈벗은 들판의 땅으로 시작하여 어두운 들판의 땅으로 끝나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땅에 관한 작가의 치밀한 계산 아래 그려진 주인공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안에서 땅의 모습은 세분화되어 끊임없이 언급되는 것이고, 그 땅의 이미지를 통해 독자는 소설을 이해하는데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황석영의 소설 「삼포 가는 길」에서의 핵심 단어는 단연 '삼포'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삼포'가 아닌 삼포를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삼포'는 정씨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삼포이기도 했으며, 공사판이 된 현재의 삼포를 의미하기도 한다. 소설 제목은 결국 과거의 삼

72) 황석영, 앞의 책, 200쪽.

73) 조현옥, 앞의 책, 23쪽.

포든 현재의 삼포든 어느 한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는’ 진행 중의 상황이므로 고향을 잃은 정씨의 마음을 대변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유이다. 더 나아가 작가는 70년대 당시의 사람들이 겪고 있던 시대 상황을 ‘삼포 가는 길’이라는 제목 하나만으로도 밀도 높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제를 ‘땅’으로써 적절히 표현하였다.

황석영 문학이 추구하는 세계는 현실세계에서 갈등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화의 공간을 제공⁷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황석영은 흙과 도시, 과거의 삼포와 현재의 삼포를 통해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70년대 상황과의 소통의 장(場)을 마련한 것이었다.

3) 빈터와 행복의 상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좌절 혹은 소외된 인간상의 표징인 난장을 통해 근로자들과 산업공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주시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⁷⁵⁾ 총 열두 편의 소설이 독립된 단편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그 독립된 각각의 단편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그래서 하나의 장편으로도 읽히는⁷⁶⁾ 매우 독특한 소설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중에서도 핵심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 ‘땅’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통장이 가져온 철거 계고장을 시작으로 작품이 전개되는데, 철거 계고장에는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라는 땅이 등장한다. 이 땅은 작가가 짜놓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땅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우선 과거의 행복동 46번지를 의미하는 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74) 김명석, 「황석영 문학과 대화의 종교」, 『작가 연구와 문학 교육』,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233쪽.

75) 김병익, 앞의 책, 95쪽.

76) 류보선, 앞의 책, 390쪽.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우리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⁷⁷⁾

영호는 철고 계고장이 날라 오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영희의 물음에 ‘우리집’이기 때문에 그냥 살 것이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는 아버지의 말에 낙원구 행복동 46번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과거의 ‘우리집’이 되었다.

70년대만 해도 낡고 허름한 지역은 개발을 위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 도시를 가꿔나가는데 좋다고 단정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의 일들은 그 당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헐릴 저희 집 같은 걸 새로 지으려면 백삼십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 지은 집예요. 우린 그걸 이십이만 원과 바꾸어야 될 입장예요. 거기서 전세 주었던 돈 십오만 원을 제하고 나면 칠만 원이 남습니다.”⁷⁸⁾

과거의 ‘우리집’은 영호네 집에 있어서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 지은 집’이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인 셈이다. 이십이만 원밖에 하지 않는 집이지만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며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하며 평온한 이미지의 땅이다. 평생 동안 바쳐온 공간이나

77)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학, 2007, 84쪽.

78) 114쪽.

현재는 그 집을 팔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평온한 이미지는 상실하게 되었으니 ‘우리집’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집’은 과거의 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⁷⁹⁾

과거의 ‘우리집’은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 지은 집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영호네 가족이 살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공간이었다. 단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백 년에 걸쳐 사람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세월이 만들어 낸 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헐려버린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과거의 땅이며, 과거의 낙원구 행복동을 가리킨다.

“당신이 텃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텃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구.”⁸⁰⁾

낙원구 행복동에는 영호네 가족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호네와 처지가 같은 백여 세대 이상의 사람들이 웅기중기 모여 뿌리를 내리고 살던 공간이다. 이런 곳을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으니 낙원구 행복동의 생활터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고동락을 같이 한 이미지의 공간인 ‘생활 터전’은 과거의 땅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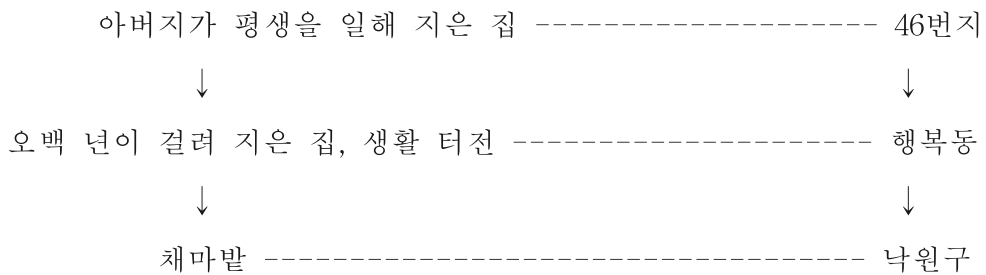
나는 낙원구의 거리와 골목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다방에 들어가

79) 124쪽.

80) 125쪽.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면서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매매 증서를 꺼내 찢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일대는 채마밭이었다. 나는 차를 마시고 채마밭 위에 깔아놓은 포장 도로를 따라 걸었다.⁸¹⁾

낙원구에 도착을 하여 과거를 회상하는 영희의 머릿속에는 ‘채마밭’이 등장한다. 과거의 낙원구는 채마밭이었다. 이 곳은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로 뒤엉켜 북적이는 땅이 아닌 채마나 가꾸며 살아갔던 한적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기억 속의 땅으로 포장도로에 묻혀 버렸다.



<표 11: 과거의 땅>

앞서 살펴본 46번지→ 행복동→ 낙원구로 범위가 점점 커지는 땅은 모두 작가가 강조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이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평온한 이미지의 46번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과 동고동락을 같이 한 생활터전으로 시선이 옮겨지며, 결국은 한적하고 조용한 이미지의 채마밭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는 점차 현재 영희네 가족이 처해 있는 현재의 땅으로 바뀌게 되면서 대조를 이룬다.

“십오만 원야요.”

81) 134쪽.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우선 건넌방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어머니는 돈을 받아들었다. 아무 말도 못 했다.

“헐릴 집이라는 걸 알면서 세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모진 소리 더 듣지 말고 우선 나가겠다는 사람은 내보내세요.”⁸²⁾

영호네 가족에게 있어 과거의 땅과 현재의 땅은 너무나도 달랐다. 곧 ‘헐릴 집’은 집의 기본 조건인 편안하고 안락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불안한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기에 적절했다. 과거의 집은 삶의 뿌리였으며 외부의 공격이나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터전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헐릴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중략)...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⁸³⁾

82) 94쪽.

앞에서 말한 ‘헐릴 집’은 ‘죽은 땅’으로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 지섭은 본인의 욕구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남의 슬픔에 관심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분개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호의 아버지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며 나쁜 짓을 한다거나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니다. 그저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된 ‘이 땅’에서 지섭은 희망이 없으므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땅은 그들에게 더 이상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죽은 땅’이었다. 땅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죽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가망이 없는 땅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공간이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맸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꽃 두 송이뿐이었다. …(중략)… 지섭이 이발관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⁸⁴⁾

현재의 땅은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존재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과거의 집이 아니라 영희가 가출한 ‘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호는 악몽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발관집이 있었던 곳(이발관집 공터)은 그저 터만 덩그러니 남은 황량한 모습이었다. 두 공간 모두 기억 속에는 그대로 있지만 영희와 이발관집이 사라진 공허한 현재를 의미하는 땅이다.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므로 현재의 공간은 땅의 의미를 상실한 곳이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 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담을 쳐부수

83) 102~103쪽.

84) 121~122쪽.

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⁸⁵⁾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허한 현재의 공간은 이제 고립된 땅으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 이곳은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면서 외부의 땅과는 격리되고, 헤어 나올 수 없는 완전한 고립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는 더 이상 소통이 없는 현실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돌아앉은 포기한 현재의 땅인 것이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말이 없고 답답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공간이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놔둬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사나이는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울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⁸⁶⁾

지섭이 죽은 듯 쓰러져 있는 ‘땅’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다. 아버지의 말처럼 지섭은 아는 사람이었다. 지식인이었지만 피에 젖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높여도 텅 비어버린 공간처럼 쓸모없는 행동이었다. 이것이 현재의 낙원구 행복동의 모습이며, 이제

85) 123쪽.

86) 125쪽.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땅 ‘공터’인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회색이다. 집을 나온 다음에야 나는 밖에서 우리의 집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회색에 감싸인 집과 식구들은 축소된 모습을 나에게 드러냈다. 식구들은 이마를 맞댄 채 식사하고, 이마를 맞대고 이야기했다. …(중략)… 밖에서 회색에 싸인 축소된 집과 축소된 식구들을 들여다보고 늙은 수부를 생각했다. 그와 똑같았다.⁸⁷⁾

작가는 현재의 모습에 땅의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땅에 색을 입히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회색에 감싸인 집’이다. 그동안은 객관적으로 우리 집을 볼 수 없었다면, 영희가 집을 나와 바라봤을 때의 집은 회색이라는 어둡고 흐린 이미지였다. 뿐만 아니라 회색에 싸인 ‘축소된 집’은 현재의 암울한 상태를 땅의 크기로 나타내며 작고 초라함을 강조하였다.

아주머니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동네를 보았다. 우리집이, 이웃집들이, 온 동네의 집들이 보이지 않았다. 방죽도 없어지고, 벽돌 공장의 굴뚝도 없어지고, 언덕길도 없어졌다. 난장이와 난장이의 부인, 난장이의 두 아들, 그리고 난장이의 딸이 살아간 흔적은 거기에 없었다. 넓은 공터만 있었다.⁸⁸⁾

영희가 낙원구 행복동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집과 이웃집, 방죽, 벽돌 공장의 굴뚝, 언덕길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다 없어지고 현재의 땅 ‘넓은 공터’만 텅그러니 남은 것이다. 영희의 마음은 앞서 말한 ‘공터’⁸⁹⁾에서 현재의 ‘넓은 공터’로 그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는 공허함이 커져만 간 것을 작가가 땅의 넓이로 표현한 것이다.

87) 127쪽.

88) 141쪽.

89) 본고의 38쪽에서 언급한 ‘공터’를 참조.

“네가 집을 나가구 식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 방 창문에서도 보이지. 어머니가 헐린 집터에 서 계셨었다. 너는 둘째치구 이번엔 아버지가 어딜 가셨는지 모르게 됐었다. 성남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 길게 애길 해 뭘 하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벽돌 공장 굴뚝을 허는 날 알았단다. 굴뚝 속으로 떨어져 돌아가신 아버지를 철거반 사람들이 발견했어.”⁹⁰⁾

영희가 현재의 낙원구 행복동 46번지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헐린 집터’를 통해서다. 이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땅은 그저 행복동의 한 부분이었지만, ‘헐린 집터’는 영희가 살아왔던 땅이기 때문에 마음에 더 크게 와 닿는 곳이다. 또한 ‘헐린 집터’는 어머니가 집 나간 영희를 찾고 기다리기 위해 서 계셨던 땅이지만 지금은 아버지까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땅이기도 했기에 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의 땅에는 영호(영희)네 가족이 처한 절망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호네 동네와 대조적인 주택가의 모습은 영호네 식구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등장한다.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둔 것뿐인데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현실은 가진 자들이 존재하는 또 다른 현재의 땅인 것이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90) 조세희, 앞의 책, 143쪽.

“자, 빨리 가자.”⁹¹⁾

‘개천 건너 주택가’는 고기를 구워 먹을 형편이 되는 동네이다. 하지만 영희네 집은 고기를 언제 먹을지 날짜조차 정할 수 없는 처지다. 고기 굽는 냄새를 모르는 척 질문하는 딸에게 걸음을 재촉하며 손을 잡아끄는 엄마의 모습은 그야말로 안쓰럽다. 이런 낙원구 행복동의 땅은 ‘개천 건너 주택가’의 땅과 비교가 되면서 그 절망적인 모습이 더욱 부각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 땅도 현재의 영호 가족이 처한 현실과 대조적으로 비춰지면서 그들이 처한 현실을 비극적으로 한껏 끌어올린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⁹²⁾

‘아파트’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보태야만 거주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므로 영희네 가족으로서도 꿈도 꿀 수 없는 땅이다. 하지만 ‘아파트’는 입주권을 많이 사들인 세단 차 사나이가 살고 있는, 행복동 46번지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현재의 땅이기도 하다.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었다. 제일 먼저 옷을 맞추어주었다. 한꺼번에 여러 벌을 맞추어주었다. 나는 그를 위해 나를 치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아파트는 영동에 있었다. 사무실도 영동에 있었다.⁹³⁾

91) 85쪽.

92) 83쪽.

93) 130쪽.

영희가 낙원구 행복동 46번지를 나와 목계 된 곳은 ‘영동’으로 ‘아파트’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 가진 자들의 동네였다. 이곳은 과거에 영희가 있었던 곳과 다르게 본인을 꾸며야 했고, 옷도 한꺼번에 여러 벌 맞춰주는 돈이 풍족한 땅이었다. 입주권이 십칠만 원에서 십팔만오천 원으로 뛰어서 손해를 봤다며 만오천 원에 울고 웃는 명희엄마와 영희의 엄마⁹⁴⁾가 살았던 낙원구 행복동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재의 땅인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⁹⁵⁾

이 소설에는 과거의 땅과 현재의 땅을 넘어 미래의 땅까지 존재한다. 미래의 땅은 현재의 불공평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난 땅이며, 지구에서 떨어진 우주의 공간 ‘달나라’로 표현된다. 그저 빨리 떠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 있으나 막연한 이상 세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를 상실한 난장이가 매우 절박하고 암담한 상태에서 추구한 곳이므로 현실세계에 대한 기대는 아니며 그 추구 행위 자체가 현실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⁹⁶⁾ 또한 작가가 소설을 쓸 때인 70년대에 있어서 달나라는 산업화 전개 과정을 고려했을 때 그저 꿈이고 환상일 뿐이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써 보냈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⁹⁷⁾

94) 101쪽의 두 사람 대화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95) 103쪽.

96) 김윤자, 앞의 책, 45쪽.

97) 조세희, 앞의 책, 120쪽.

여기서 나오는 ‘미국’은 아버지가 떠나려고 하는 달나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다. 우주 계획 전문가들이 아버지를 달에 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희망적인 땅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달나라보다 조금은 현실에서 가까워 보이지만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미래의 땅으로 설정된다.

“그의 금고 속에 우리 아파트 입주권이 들어 있어요. 그걸 맨 밑으로 내려놨어요.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팔리기 전에 그걸 꺼내가지고 갈래요. 그의 금고 번호를 알아놨어요.”

“누가 너더러 그런 짓을 하라고 했니? 빨리 일어나 옷을 입어라.”

“안 돼요, 엄마.”

“우린 성남으로 가기로 했다. 빨리 일어나라.”⁹⁸⁾

엄마는 세단 차 사나이의 금고 속에 있는 입주권을 가지고 도망치려는 영희에게 그만두라며 ‘성남’에 갈 것이니 필요 없다고 말한다. ‘성남’은 아버지가 말한 달나라나 미국에 비해 현실적인 공간으로서의 땅이다. 입주권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영희네 가족이 갈구하는 안식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점점 구체화되는 미래의 땅이다.

달나라 ----- ► 미국 ----- ► 성남

<표 12: 구체화 되는 미래의 땅>

영희네 가족이 살았던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은 그들이 소설 속에 처해 있던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생활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

98) 132쪽.

감을 느끼는 곳, 이 모든 것이 함께 할 것 같은 동네의 이름은 영희네 식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땅의 이름을 통해 작가는 의도하는 바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독자는 이를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현실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소설 속의 모든 땅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땅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현재	미래(이상향)
우리집	헐릴 집	달나라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 지은 집	이발관집 공터	미국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	영희가 가출한 집	성남
백여 세대의 생활 터전	죽은 땅	
채마밭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짜고 돈 집	
	지섭이 죽은 듯 쓰러져 있는 땅	
	회색에 감싸인 집	
	넓은 공터	
	헐린 집터	

<표 13: 과거, 현재, 미래의 땅>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현재를 의미하는 땅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데, 이 땅들은 다른 땅들에 비하여 암울하고 집의 실체가 없는 ‘터’로

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영희네 가족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과 그들이 느끼는 공허한 마음을 나타내기에 비어있는 땅인 ‘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한국사회는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전제주의적인 정치체제의 주도로 고도의 압축적인 산업화를 이루게 된다. 이는 도시의 팽창으로 철거민 지대로 변한 무허가 불량 주택단지나 판자촌을 부동산 투기꾼들의 무대⁹⁹⁾로 만드는 주요인이 되었다. 과거의 땅과 현재의 땅 ‘낙원구 행복동’은 이러한 시대 상황을 나타내기에 매우 적합하였으며, 땅을 통한 접근은 소설의 리얼리티를 한층 북돋아 주었다.

3. 땅과 작중 인물의 인식

땅은 작중 인물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곳이지만 그들에 따라 인식하는 방법은 제각각 다르다. 본고에서는 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인식으로 나누고자 한다.

1) 삶의 근거로서의 땅

위에서 살펴본 이문구의 「관촌수필 1-일락서산」,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땅’을 마음의 안식처로 본다는 점인데, 이는 70년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70년대 초에 발표된 「관촌수필 1-일락서산」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

99) 유영준, 「조세희 소설의 소수성 연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2쪽.

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¹⁰⁰⁾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옛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쓸렁하고 울적한 기분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관촌에 왔지만 고향의 모습이 사라져 옛모습에 대한 귀함을 깨닫는 나에게 관촌은 그저 과거가 아닌 고향 그 이상이었던 것이다.

범바위 앞, 서울로 이사하기 앞서 종산으로 먼봉해드린 다음 집과 함께 모개홍정 해 선로원線路員 김씨에게 팔아넘긴 산소 자리에는 고구마를 갈았다가 거뒀던 듯, 마른 고구마 덩굴이 우북더북한 밭고랑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중략)… 좀더 저물고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읍내로 들어가야 하리라. 그러나 나는 몇 가구의 하잘것없는 인가를 돌아 옛동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¹⁰¹⁾

집까지 팔아버리고 도시로 간 ‘나’는 관촌을 성묘의 목적으로 찾게 되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에 온 나는 과거 속에 있던 관촌과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는 관촌의 모습에 여간 쓸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나’가 생각했을 때 고향(관촌의 땅)이란 마음 한 곳 깊숙하게 자리 잡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그 곳이 변해버렸으니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나’는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어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읍내’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촌(마음의 안식처: 고향)의 모습을 찾기 위해 ‘옛동산’으로 올라간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도 땅을 마음의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만년을 나고, 어머니가 기울어진 가운데 끝까지 시달리다 지쳐 운명을 한, 그러나 내 손에 모든 것이 청산되어 이젠 남의 집이 된 옛집.¹⁰²⁾

100) 이문구, 앞의 책, 10쪽.

101) 23~24쪽.

102) 24쪽.

할아버지 말을 따르자면 재래로부터 꺼려온 공·시자工·尸字형을 피했을 뿐 아니라 일·월·구·길자日·月·口·吉子형에서 가장 알뜰한 것만을 골라 갖춘 구조 밑에 정초定礎된 집으로, 기와로 개축을 하자면 암수키와만 열 늘(十訥)이 들어도 모자라겠다면 집이었다.

“좋은 집이니라. 풍광이 명미허구 수세水勢두 순조롭구. 내가 후제 잔디찰방을 허더래두 부디 이 집을 잘 가꾸어야 허여……”¹⁰³⁾

할아버지는 관촌의 ‘옛집’과 평생을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 만년을 지내게 되었다.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집은 마음의 안식처 그 이상이었다. ‘이 집’은 본인이 죽은 후에도 잘 가꾸어야 하는 집안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귀하게 지어졌으며, 경치가 맑고 아름다워 마음의 안식처는 물론이요, 한 집안의 정신과도 같다.

「삼포 가는 길」에도 땅을 마음의 안식처로 보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씨와 백화 두 사람이다. 백화는 고향(남쪽의 집)으로 떠나려 한다. 그 곳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농사나 거들며 마음을 편히 쉬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고향 땅을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어디까지 가오?”

“집에요.”

“집이 어딘데……”

“저 남쪽이에요. 떠난 지 한 삼년 됐어요.”¹⁰⁴⁾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¹⁰⁵⁾

103) 32쪽.

104) 황석영, 앞의 책, 215쪽.

105) 221쪽.

정씨도 ‘고향’(삼포)을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씨가 ‘삼포’를 가려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벽지라 가서 마땅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씨는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떠나는 것이다.

“넉달 있었소. 그런데 노형은 어디루 가쇼?”

“삼포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달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방향 잘못 잡았수.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내 고향이오.”¹⁰⁶⁾

하지만 노인의 말에 마음의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었던 과거의 삼포가 사라졌으니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고향’은 나룻배가 다니던 사람이 적은 곳이었는데, 바다 위에 ‘신작로’가 나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변했으니 삼포라는 땅은 그대로 있지만 고향의 땅은 사라진 것이다. 정씨는 ‘고향=안식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관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관 일이나 잡읍시다.”

106) 203쪽.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¹⁰⁷⁾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영호는 입주권을 팔려고 하냐는 영희의 질문에 팔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행복동 46번지는 ‘우리집’이기 때문에 팔지 않고 그냥 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집이다.”

...(중략)...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¹⁰⁸⁾

뿐만 아니라 ‘집’을 헐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보금자리를 침략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인간 최후의 발악인 것이다. 비록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집은 영호에게 하나밖에 없는 마음의 안식처였으며, 유일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영희야, 넌 집을 나가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나는 대답했다.

107) 225쪽.

108) 조세희, 앞의 책, 83~84쪽.

“그의 금고 속에 우리 아파트 입주권이 들어 있어요. 그걸 맨 밑으로 내려놔요.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팔리기 전에 그걸 꺼내가지고 갈래요. 그의 금고 번호를 알아놔요.”

“누가 너더러 그런 짓을 하라고 했니? 빨리 일어나 옷을 입어라.”

“안 돼요, 엄마.”¹⁰⁹⁾

영호와와는 다르게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서라도 땅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영희 역시 마음의 안식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다. 도덕적 고통을 무릅쓰고 부동산 업자를 따라가 아파트 입주권을 빼앗아 오는 것은 주체성의 표현이며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¹¹⁰⁾ 어머니가 가출한 영희를 다그치며 빨리 일어나 옷을 입으라는 말에 영희는 금고 속 아파트 입주권(영희의 유일한 안식처: 행복동 46번지)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엄마의 말을 거절한다. ‘마음의 안식처=땅’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영희의 의지가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집의 훼손은 영희가 가출을 하여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난장이 가족의 가정 파괴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집은 난장이 가족에게 있어서 가정 결속의 상징물이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70년대에 있어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이 사회에 뿌리박고 살 근거가 되며, 집이 없다는 것은 곧 뿌리 뽑힌 삶을 의미한다.¹¹¹⁾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땅은 마음의 안식처 그 이상이었고, 이를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거나 해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2) 재화로서의 땅

109) 132쪽.

110) 김정신, 「조세희 소설 연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6쪽.

111) 김병익, 「한국 문학에 나타난 계층 문제」, 『들린 시대의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55쪽.

각각의 소설에는 땅을 마음의 안식처로 보는 인물들과 다르게 재산의 수단으로 보는 인물들도 있다. 하지만 이문구의 「관촌수필 1」에는 똑같은 인물인 ‘나’이지만 마음의 안식처로 보기도 하고 땅을 재산의 수단으로 보기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관촌수필 1-일락서산」 속 ‘나’는 현재 관촌에서 살고 있지 않다. ‘대지 삼백오십여 평에 건평 칠십여 평의 ㄷ자로 된 집’에서 살았으나 ‘열한 평짜리의 아파트’로 옮겨서 살고 있다.

할아버지가 만년을 나고, 어머니가 기울어진 가운데 끝까지 시달리다 지쳐 운명을 한, 그러나 내 손에 모든 것이 청산되어 이젠 남의 집이 된 옛집. 대지 삼백오십여 평에 건평 칠십여 평의 ㄷ자로 된 그 집은, 술수평이 기슭 잔디밭을 뒤꼍 장독대로 하여 남향반이로 정좌한, 덩실하고 우아한 옛날의 풍모를 조금썩은 간직하고 있는 듯도 했다.¹¹²⁾

가을이면 조석으로 쓸어 담아내어도 땅이 안보이게 낙엽이 쏟아져 쌓이던 정원이며 뒤란, 서너 칸이 넘던 대청마루와 사랑 뒷마루들, 쓸고 닦기가 지겨워 아늑하고 좁은 집에서 살기를 그토록 원했던 내 신세는, 이젠 내 명의로 된 유일한 부동산이기도 한 열한 평짜리 아파트 한 칸만을 겨우 지니게 되고 말았다.¹¹³⁾

내 손에 모든 것이 청산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나’는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땅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가 땅을 마음의 안식처 그 이상으로 인식했다면 재산의 수단으로 보고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청산을 하고 도시의 아파트를 샀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당시(과거)에는 땅을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 등장하는 영달은 정씨나 백화와 다르게 같

112) 이문구, 앞의 책, 24쪽.

113) 26쪽.

곳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씨가 가려던 고향인 삼포가 나룻배가 다니던 곳에서 신작로가 생긴 ‘공사관’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영달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며 삼포로 갈 곳을 결정한다.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관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관 일이나 잡읍시다.”¹¹⁴⁾

영달에게 있어서 ‘땅’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인지, 혹은 아닌지에 따라서 갈 만한 곳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되는 곳이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땅은 그런 의미에서 영달에게 재산의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영달의 인식은 소설 결말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영달은 ‘대전’이라는 도시를 공사장이 있어서 노임이 실하여 좋았던 곳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영달에게 있어서 땅은 노동을 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의 인식이 바뀌는 곳이다.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소?”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달이는,

“언제요?”

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껄껄 웃기 시작했다.

“좋았지 정말. 대전 있었습시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볼 일두 없었구 노임두 실했어요.”

114) 황석영, 앞의 책, 225쪽.

“살림을 했군?”

“의리있는 여자였어요. 애두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구 서울루 식모 자릴 구해서 떠나갔죠. …(중략)…”¹¹⁵⁾

영달이 만났던 옥자라는 여자 역시 영달처럼 땅을 재산의 수단을 여기는 사람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 ‘서울’이라는 곳으로 떠났다.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를 향해 간 것이다.

도시는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사는 곳으로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보통 높은 빌딩과 아파트의 형태를 띠고 1차 산업보다는 2·3차 산업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므로 자본이 없는 몸이 전부이자 재산인 이들에게 있어서 도시는 그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편일 뿐이었다.

M. 베버는 순 경제적으로 도시를 그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정주형태라고¹¹⁶⁾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는 이미 단어 자체만으로도 영리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곳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땅으로 향했다고 결부시킬 수 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땅’을 마음의 안식처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재산의 수단으로 보는 인물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세단 차 사나이가 바로 이러한 경우의 사람이다.

우리 동네에서 사온 아파트 입주권은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그는 재개발 지구의 표를 거의 몰아 사들이다시피 했다. 영동 일대에 잡아놓은 땅도 많았다.

그의 집은 부자였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작은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에

115) 210쪽.

116) 손정목, 「도시의 본질에 관한 문명론적 접근」, 『한국현대도시의 발자취』, 일지사, 1989, 6쪽.

게도 말했었다. …(중략)… 그는 우리 동네에서 사온 아파트 입주권을 사십오만 원에 팔았다. 그 이하로는 팔지 않았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나는 미리 사두었다가 일이만 원 정도 더 받고 넘기겠지 했었다.117)

그의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구의 표를 거의 몰아 사들였다. 그는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고 그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필요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십오만 원에 사온 입주권을 사십오만 원에 팔아버리는 장사까지 했다. ‘땅’을 주거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부동산업자와 투기꾼들의 폭리 등을 품고 있었던 70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폭로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인물들의 등장은 땅을 자꾸 소유하려 하고, 물질주의로 팽배해져 자연을 훼손하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남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70년대는 이런 사람들과 땅에 뿌리를 둔 마음의 안식처로 여기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작가는 후자에 그 가치를 두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땅’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들은 당시의 ‘땅’에 대한 인식의 형상화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본론에서 다른 소설들에서 크게 세 가지 각도로 바라본 1970년대 ‘땅’의 형상화는 당시의 민중들의 고통스런 삶의 양식을 공간화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과는 40년의 시차가 있으나 이 소설들이 던진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땅’이 지닌 변하지 않는 가치와 새로운 의미에 대해 인식하게 만드는 작가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117) 조세희, 앞의 책, 130~131쪽.

Ⅲ. 결론

본고에서는 1970년대 소설에 제시되고 있는 ‘땅’이 작가로 하여금 당시의 시대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사용되고 표현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문구의 『관촌수필』,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70년대의 대표 소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작가들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한편의 그림을 그리는 듯한 문장력, 작가의 피나는 노력이 이런 대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작가의 소설은 우리 민족이 살아온 ‘땅’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더 나아가 미래 혹은 이상향의 모습이 ‘땅’이라는 속성을 통해 적절히 혼재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그 빛을 발하였다. 세 작품을 통해서 산업화와 ‘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분화되어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땅’은 우리가 태어나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항상 함께 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터전으로 삼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표현하기에 가장 익숙하고 적합한 매개체다. 그러므로 작가는 치밀하게 계산된 소설 전개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땅’을 적절히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하여 산업화 시대의 ‘땅’에 인식 변화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세 작가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각각 처한 ‘땅’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들 마음의 안식처로 느끼고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안식처로서의 땅이 점점 변질됨에 따라 그저 변화에 순응하는 인물과 아노미 상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물, 몸을 던져서라도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능동적인 인물에 따라 소설의 전개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문구의 농촌소설 「관촌수필 1-일락서산」은 변해버린 ‘관촌’을 안타깝게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농촌 사회의 붕괴를 우회적으로 그려내었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삼포’라

는 고향이 사라져 당황하는 정씨의 모습을 통해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을 리얼리즘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는 ‘달나라’라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과 철거민의 암울하고 폭력적인 현실을 빈터라는 땅과 대조시키며 영희 가족의 저항을 통해 환상적으로 상징화하였다.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본 1970년대 ‘땅’의 형상화는 당시 민중들의 고통스런 삶의 양식을 공간화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촉구하는 문제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이문구, 『관촌수필』, 랜덤하우스중앙, 2004.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힘, 2007.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창비, 2005.

2. 단행본

- 강진호, 『탈분단 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국사편찬위원회, 『농토를 떠나 공장으로 : 1970년대 이촌향도와 노동자의 삶』, 국사편찬위원회, 201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작품 연표 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_____, 『한국현대문학작품 연표 2』,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 두산동아, 2000.
_____, 『표준국어대사전』 하, 두산동아, 2000.
김명석, 『작가 연구와 문학 교육』,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9.
_____, 『들린 시대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5.
김윤식 외,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비평사, 1988.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김홍신,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산업화 양상 연구』, 박이정, 2010.
류보선, 「사랑의 정치학: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서 본 조 사회론」,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 서종택, 『한국현대소설사론』,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9.
- 우찬제,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 이봉범, 「농민문제에 대한 문학적 주체성의 회복: 1970년대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1.
- 손정목, 『한국현대도시의 발자취』, 일지사, 1989.
- 장일구,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진정석, 「이야기체 소설의 가능성」,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 한영옥, 『한국 현대시의 場』, 푸른사상, 2004.

3. 논저

- 가성훈, 「한국 현대 여로형 소설의 구조와 양상: 「만세전」, 「동행」, 「삼포 가는 길」」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강상대,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일탈구조 연구: 황석영, 조세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권경미,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하급 계층 인물 연구: 이문구, 조세희, 황석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덕숙,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양희, 「『관촌수필』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용구,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현실 인식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유진, 「황석영의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현실과 대응 양상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윤희, 「『관촌수필』과 『우리동네』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윤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김정신, 「조세희 소설 연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지운, 「황석영 소설의 공간적 배경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신재선, 「황석영 소설 연구: 소설에 나타난 실(탈)향성과 귀향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심지현, 「1970년대 소설의 사회변동 수용 연구 : 이문구, 윤홍길, 조세희의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옥상주, 「구약 시대의 땅의 의미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원종국,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유경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구: 1970년대 현실 인식에 따른 환상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유영준, 「조세희 소설의 소수성 연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세경,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공간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임연수, 「‘땅’의 속성을 반영하는 지형적 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정혜경, 「길 모티프 소설에 나타난 ‘서사 공간’의 양상」,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제144호, 2006.

조현옥, 「여로형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 '~가는 길' 소설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한근영,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도시 노동자 문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ABSTRACT

A Study of Land in Novels of 1970s

- Focusing on “Gwan Chon Essay”, “The Way to Sampo”, and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Kwack, Ah-Ram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re had been a lot of radical changes socially and politically in the 1970s. Especially, one of our great achievements in the 1970s is industrialization. Industrialized society seems to contribute to increase our standard of living, however the reality was not. Actually many workers at that time had struggled to make ends meet and it had become very difficult to live in rural areas as more and more young people left for urban areas, seeking for jobs. So in this society, it was quite understandable that many elites, especially authors who often have critical view of our society have become interested in many problems regarding labor. This social background allowed us to have many great novels which were set in that hard time.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which focuses on the hard life of the working classes of the 1970s , 'Gwanchon Essay' which was set in the rural area, and 'The Way to Sampo' are good examples.

These problems result from our geological features. So I think it deserves to see the way "the Land" has been dealt with in our novels, because land reflects our lives.

We set up a base on 'Land' from cradle to grave. So Land is often used in many novels to describe our past, present and future. It can be used as a medium in novels as it connects present and past. Therefore, the authors of the three novels, used it intentionally to show the changes of our awareness of the land effectively. And this really worked.

There is one common thing these three novels have. That is the fact that main characters of these novels show strong attachment to the land and see it a place to rest. However as time goes by, we use our lan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ast. This let roughly three types of people have appeared. The first type of people is those who have adapted to the new lives, and the second type is those who got confused due to radical changes. And the third people are those who can do anything they can to protect the land and keep the land from being changed. The stories of these three novels are different depends on these three types of people.

Lee, Moon koo's novel "Gwan Chon Essay" tries to describe the collapse of rural communities through the main character who accepts the radical changes, doing nothing for that, even though he feels sorry for that. "The Way to Sampo" written by Hwang, Seok Young, criticizes the fact that we are losing our hometown from a realistic

view by the character called 'Mr. Jung'. In this novel, Mr. Jung got confused after he realized that his hometown, Sampo has been disappeared. In Cho, Se Hee's novel,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the author tried to symbolize the land by contrasting two different lands. One is our ideal land that we cannot reach, and the other is our real ground we live on.

The land in these three novels embodies the difficulties of the 1970s in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these novels are absolutely worth to be read because these novels allow us to think about the real meaning of our land.